

삶+미술=삶, 삶-미술=삶

April, 2020 | 안규철

page 1 of 3

비밀을 지켜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노수현 선생은 자기 책상에 있는 지필묵 등의 일체를 숨겼노라 그랬다. 총독부전람회를 거부할 수 있었던 지사다운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 일은 지금도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조용히 묻혀 있는 일화로 남았다.

이런 일련의 선배 시대의 우리 역사를 보면서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나는 어떻게든 치유하고 싶었고 민족정기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 작업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오천 년 역사를 한눈으로 꿰뚫을 수가 있었다. 나는 안익태의 <코리아판타지>를 사랑한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또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어>를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 모두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선배들의 귀중한 저항 정신의 기록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다. 외국에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쌀농사를 해서 가을 겨울을 살았는데 보리가 나오려면 여름을 기다려야 한다. 그 봄을 넘기기가 어려웠다는 말인 것이다. 1970년대 들어서 파리라는 데를 처음 갔다. 그때 그 사람들 사는 게 한눈에 들어왔다. 의식주가 걱정이 없어 보였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간에 입은 옷에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빵과 우유가 싸서 밥 굶는다는 사람들이 있을 성 싶지 않았다. 사는 집들이 똑같아서 들락날락하는데 누가 부잣집 사람인지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도 이제 먹고살 만해졌다. 그런데 윤리 도덕이 망가져서 황당한 일들이 생겨난다. 잘살아보자고 지향하는 의욕만큼 바로 사는 것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인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아쉽다.

근세 백 년 우리는 참 숨 가쁘게 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세 없는 비상시를 살아왔다. 나는 항상 어떤 막다른 골목에 서서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도전하였다. 나의 예술은 자유를 찾는 한 방편이었던지도 모른다. 나는 맑은 영혼으로 청정한 삶을 살고 싶다.

공자가 시(詩) 삼백 편을 골라놓고서 어디에도 샷됨(思無邪)이 없었다 한 말이나 장욱진이 나는 심플(simple)하다(나는 깨끗하다)고 외친 뜻이나 독일의 시인 뢰넬린이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죄한 사람이라 한 것이나 모두가 한가지로 예술 정신의 청정함을 말한 것이다. 자고로 동양의 예술가들은 도덕적인 온전함, 그 정화(淨化)의 삶을 흠송(欽崇)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난세를 얻어서 더욱 빛났다.

최종대 / 1932년 충남 대덕 출생. 서울대 조소과 졸업.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960년 문교부장관상, 국전 4회 수상,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 2008년 문화훈장 은관 수훈. 『최종대, 그리며 살았다』, 『장욱진, 나는 심플하다』, 『산다는 것 그한다는 것』 등 10여 권의 에세이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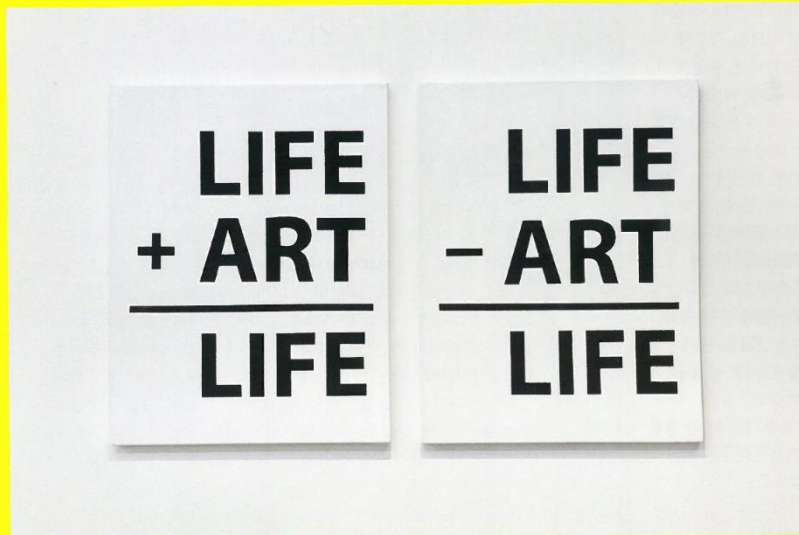
삶+미술=삶, 삶-미술=삶

/ 안규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시내 나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뮈의 『페스트』가 매대 위에 올라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는 걸 보면서 그 책을 다시 꺼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다 비슷한 모양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도 알 수 없는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지금의 상황을 파악할 실마리를 찾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카뮈의 『페스트』처럼 고립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지적 재난이 아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는 하나의 그물망에 묶여 다함께 흔들리고 잇달아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의 이동과 접촉을 금지하는 비상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제적 추락과 사회적 혼란의 도미노는 이미 걸잡을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 정치인들이 앓다뉘 입에 올리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넘어 경제와 사회, 세계 질서 전체로 확산되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 종식되더라도 그 이후의 세계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되기까지 석 달이 채 안 걸렸다. 그 석 달 사이에 우리는 21세기의 세계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 개방과 연대를 내세우는 세계화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슬로건이 공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허상이었는지를 확인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맨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미술이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가장 먼저 난파선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미술이다. 미술관들이 문을 닫고 전시가 연기되고 아트페어가 취소된다. 전시 공간이 없고 관객이 없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미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려운 질문, 정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다. 작업실에 고립되어 있는 많은 작가가 지금 이 질문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미술관과 갤러리가 폐쇄되고,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었다. 오프닝도 없고 국제 교류도 없다. 동시대미술의 제도 전체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인규철 <Life> 캔버스에 아크릴릭
각 53×41cm 2017

임 페이지
최종태 <모자상> 종이에 풀펜,
색연필 20×14cm 2019

다음 페이지
이재 <공> 캔버스에 유채
90.9×72.7cm 2020

미술인들은 각자의 무인도에 고립되었다. 물론 이 상황은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가들은 하던 작업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상한 상황을 미술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술관, 미술시장, 관객이 없을 때 미술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미술-미술관=미술? 미술-미술시장=미술? 미술-관객=미술?

나는 지난번 개인전에서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삶+미술=삶, 삶-미술=삶. 삶에 미술을 더하든 빼든, 미술이 있든 없든 삶이 그대로라면, 미술은 삶에 덧붙여진 부록 같은 것이다. 나는 과연 그런지를 물으려 했다. 여기서 삶을 세계로 바꿔놓아도 같은 얘기가 된다. 미술은 세계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인가?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술은 감염병을 치료할 수 없다. 미술가들은 백신을 개발할 수 없다. 그것은 미술가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를 공격하는 폐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불안과 공포, 냉소와 절망, 불신과 혐오, 광기와 폭력 같은 파괴적인 질병을 동반한다. 이 사회적 질병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들을 공격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타자에 대한 관용, 타인의 불행에 대한 공감, 소수자와 약자의 포용,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긍정,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부조리와 억압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이것들은 지금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이고, 미술이 지지하고 실천하려 애써온 가치이다. 그것은 미술이 세계 속에, 세계와 함께 있어야 할 근거가 되는 윤리적 기반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의학적 질병이자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정치적 질병이다. 많은 사람이 국가에 더 강력하고 극단적인 감시와 처벌을 요구하고, 정치인은 곤경에 빠진 이웃에

대한 긴급 지원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전체적 정권의 세계적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사회적 질병을 무관심과 냉소로 방관한다면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의 퇴행, 역사적 중비들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미술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미술이 그 어떤 정치 선전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무관심과 싸우는 일, 연대를 지지하는 일, 누군가가 보내야 할 편지를 대필해주는 일, 악의로 가득 찬 메가폰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중의 함성에 묻힌 개인의 목소리를 듣는 일, 소음으로 가득한 세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일, 우리가 함께 들던 음악, 함께 맞본 기쁨을 기억하는 일, 빛나는 순간들을 새겨 넣는 일... 미술제도가 멈춰 있어도 미술은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

끝으로 폴란드 시인 아담 자가에프스키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 동료 미술인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상처 입은 세상을 참미하려 노력하라

6월의 긴 날들을

산딸기와 로제 와인 방울과 이슬을

쫓겨난 사람들의 농장 위를 빈틈없이 뒤덮는

썩어빠진 것을 기억하라

(...)

상처 입은 세상을 참미해야만 한다

하얀 방에 우리가 함께 있던 순간을 기억하라

커튼은 펄럭이고 있었다

음악이 폭발하던 콘서트의 기억으로 돌아가라

가을이면 너는 공원에서 도토리를 주웠고

나뭇잎들은 땅의 흉터 위에 소용돌이쳤다

상처 입은 세상을 참미하라

개똥지빠귀가 잃어버린 회색의 깃털을

흘러가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드러운 빛들을

(아담 자가에프스키, 「상처입은 세상을 참미하려 노력하라」 중에서)

안규철 / 1985년 서울 출생, 서울대 조소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 학부 및 연구과정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제19회 김세종조각상 수상, 역서 『진실의 색』(히토 슈타이어), 『몸짓들』(빌렘 플루서) 등, 『월간현대문학』 연재 중.

과국을 마주하는 세 감각

/ 이 제

방—세 살 즈음, 같은 방에 늘 누워 지내시던 증조할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말이 트이기 전에 먼저 다가온 연민, 분노, 공포 비슷한 감정들은 그때 내 안 어딘가에 들어와 깊숙이 박혔다. 재개발 현장에서 처음 본 도시의 지평선, 굉음 속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 들어오는 가득한 빛. 비 오는 도로변에서 부둥켜안고 목 놓아 울고 있는 중년의 여자들. 출발하는 지하철을 따라 뛰면서 배웅하는 남자의 미소. 오물토들 모래알처럼 퍼진 중학생 조카의 이마 여드름. 꽃이 막 진 목련나무 앞에서 받은 동료의 부고. 손잡이가 떨어진 가방과 사방으로 흩어진 물건들의 배열. 마스크를 끼고 우연히 한 무리가 되어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라앉는 배 안에서 찍힌 기울어진 풍경들.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검은 드레스. 양손을 흔들며 안녕을 알리는 고공 농성자. 짙은 여름의 운동장과 공을 차는 아이들. 국경 너머 강가에서 여유롭게 물을 마시고 있는 한 마리의 개. 빠르게 스쳐 가고 서서히 가라앉는 매일의 풍경 속에서 가끔씩 나는 옛날의 그 방에 있는 것 같다.

국경—이동하는 자라서 이동한다. 도달할 수 없는 사건과 기념비 사이, 침묵과 증언 사이로 야간 버스만큼 겨우 자유롭다. 안개 짙은 날에 길을 잃기는 쉽지 않다. 짙은 밤에도 옆에는 지평선이, 그 옆에는 강이 흐른다고 믿는 것이 한계이다. 종종 일부러 바람이 가는 쪽으로 여러 번 몸을 틀었으나 경로를 벗어나는 것은 제 이름을 잊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담아온 것을 멀리 던지면 안개의 심도를 알 수 있다. 던져진 것들이 바닥에서 깨어지는 소리에 지평선의 실재를 확인한다. 이방인의 마음, 이주의 몸짓, 생의 냄새 같은 게 거기 있을까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허기가 물려왔다. 언 땅을 손으로 파다는 그는 죽은 부인의 국수를 삶아 내었다. 상상은 나를 진실. 수행은 연약한 거짓말.

침묵하는 자는 침묵을 파고들게 되어 있다. 잠이 들었고 살짝 깬데 어느 쫓겨난 옆에서 쿵쿵거리는 어린 내가 고향이 키스를 한다. 돌아가고 싶은 곳은 모두 고향이지. 닿을 수 있는 이는 고향이 아니지. 나의 빈 심장을 더 사랑해야겠다. 강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는 곳, 죽은 이가 들어오는 곳, 겨울 호랑이가 느리게 통과하는 곳, 너를 다시 만나는 곳, 내가 사라질 곳.